수 백 번의 기대와 실망 끝에

(창16:1~16)

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3.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수백 번의 기대와 실망 끝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수백 번의 기대와 실망 끝에'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에 기대를 걸었다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는 일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반사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수백 번을 기대하고 수백 번을 실망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칠전팔기(七顚八起)라고 일곱 번 기대를 걸었다가 일곱 번 낙방해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에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있지요.
칠전팔기 정도 되면 한 가지 일에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는 일에 거의 Maximum 수준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수백 번을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일이 있을까요?
다른 경우에 그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수백 번 기대를 했다가 수백 번 실망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는 있어요. 임신입니다. 임신은 수백 번 기대를 했다가 수백 번 실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여성들은 매달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10년이 되어 봐요. 벌써 120번이잖아요. 15년을 기다렸다면 180번이죠. 20년 기다리면 240번입니다. 240달을 기다렸다가 임신이 안 되면 240번째 실망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 말고 사람이 살면서 수백 번 기대하고 수백 번 실망하는 일이 또 있나요?
저는 얼른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지.

일곱 번 기대를 걸고 도전했다가 일곱 번 실망하고 여덟 번째 일어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백 번 기대를 걸고 수백 번 실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사래와 아브람을 또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누명이에요.
그 비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람과 사래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아브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데 무엇이냐?
"네 몸에서 나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비난의 내용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언약을 불신앙적인 조급함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집안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셨으면 어련히 다 수행해 나가시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조급함을 가지고 여종 하갈과 동침하도록 사래 자신이 앞장서서 그 일을 주선하고, 아브람도 사래가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으니 어련히 하시지 않겠느냐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하갈을 거절했어야 하는데 넙죽 받아서 그만 하갈이 임신이 되었고,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행동한 결과로 하갈이 아기를 갖고 나서 여주인 사래를 멸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래는 그것을 못 참고 아브람에게 당신이 하갈을 백업해 주고 있어서 기세가 등등해서 나를 무시한다. 정말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불평을 하게 되고, 아브람은 또 이것에 대해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좋을 대로 하라고 해서, 결국은 하갈이 사래의 학대를 못 이겨서 쫓겨나가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 불신앙적인 조급함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언약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며 비난을 합니다.
이게 통설이고 보편적으로 이 본문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람과 사래를 오해하고 엉뚱한 누명을 씌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브람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왜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사래와 나 사이에 자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아브람과 사래가 자손의 언약을 미리 빨리 이루고 싶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고 누명을 씌우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람과 사래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먼저 간구해 본적이 없어요.

결혼을 했으니 애를 기다리기는 했겠지만, 적어도 창세기 기록상에는 아브람이 먼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람의 생활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일은 폐허로 등 뒤에 남겨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것을 일로 삼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자식이 갖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사래의 입장을 살펴봅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가?
'수백 번의 기대와 수백 번의 실망 끝에'라는 제목도 사래를 겨냥한 것입니다.
수백 번의 기대와 수백 번의 실망 끝에 사래가 이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부부 사이에 애가 없을 때에 여주인이 자기의 여종 중의 하나를 택해서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그 여종이 아이를 갖게 되어 남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명확하게 주시지 않았을 때에,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그냥 풍습을 따라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래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추측해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복음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때는 바야흐로 아브람이 85세고 사래의 나이는 10살이 어린 75세입니다.
그러면 사래는 몇 살에 결혼을 했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사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이야기가 언제 처음 나오느냐? 11장에 나옵니다.
11장에서는 노아의 아들 중에 셋의 자손의 족보가 나오고 12장으로 넘어갑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은 뒤에 셋의 족보가 소개되고 나오는데, 이 셋의 족보가 아브람으로 연결됩니다.
이 셋의 족보에서 괄목할 만한 사실이 한 가지 발견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앞의 족보에 비해서 현저하게 첫 자녀 출산의 남자연령이 굉장히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셋의 족보를 보면 전부 30세, 34세, 29세 평균 잡아서 30세 나이가 됩니다. 단,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만 70세에 첫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이 데라의 아들들인데 아브람이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람은 따지고 보면 데라가 135세에 낳았습니다. 첫째가 나홀인지 하란인지 모르겠지만 70

세에 낳았어요. 그런데 데라만 그렇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30대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줄잡아서 30살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사래가 아브람과 결혼한 나이는 20살입니다. 지금 75세가 된 거예요. 그리고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래가 65세로 하란을 떠나게 될 때에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0세부터 65세까지는 약속 없이 애를 못 낳고 살았고, 65세 때부터 75세 때까지는 약속이 있는데 애를 못 낳고 산겁니다. 10년 동안만 해도 달수로 치면 120달입니다. 약속을 받고서 120달, 약속 받기 전에 20살에서 65살까지가 45년이면 무려 500달이 넘는다고 치면 사래가 결혼해서 65년 동안 700-800달을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매달 임신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 심정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리고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라는 말을 오늘 사래가 2번을 사용합니다.
하갈이 임신한 뒤에 자기를 멸시할 때에도 아브람에게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갈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쓴 여호와의 이름을 주석가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는 이야기를 어떻게까지 사래를 몰아치느냐?
애를 못 낳는 모든 이유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린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여자가 아기를 갖고 못 갖는 문제는 여호와께서 결정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가볍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유는, 사래의 입에서 나온 여호와라는 이름은 20살에 결혼하고서 75세까지 55년*12달 동안 600-700번, 매 번 임신을 기다리면서 여호와를 생각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아기를 주실지 안 주실 지를 기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임신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아기를 주시지 않으셨구나.’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들고 600번 기대했다가 600번 실망하면서도 붙들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였습니다.
지금 사래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의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께 책임을 돌린다든지, 가볍게 생각해서 남발하는 의미에서 여호와

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여자로서의 자기존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전쟁 아닌 전쟁을 55년간 해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약속을 받은 1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남편인 아브람에게 자손의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귀한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자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으로 자기가 잉태할 것을 기대하지 않을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아기를 낳지 누구를 통해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120달을 한 달도 예외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으면서 실망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도 주시지 않으셨구나.'

그런데 왜 갑자기 자기에게서 출산의 기대를 끝내버렸을까요?
추측컨대 75세니까 사래의 경수가 끊어지지 않았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래의 경수가 있을 동안에는 사래가 매달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려나? 여호와께서 안 주셨구나.'
이 기대와 실망을 몇 백 번을 반복하다가 경수가 끊어지면서 그래도 사래가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는 겁니다.
'내게서 경수가 끊겨서 아기를 낳지 못할 것이 분명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야 한다.'
수백 번의 기대와 실망 끝에 사래가 이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자손의 축복을 약속해주실 때에 아브람의 몸에서 나올 자손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지, 야속하게도 아브람의 씨가 사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래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남편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려면 이제 애를 낳긴 낳아야 하는데, 자기에게서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것을 수백 번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대하다 실망한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통해서 남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불신앙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으면서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기를 갖게 된다면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나가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복된 약속으로부터 자기를 배제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되, 하나님께서 나를 배제하신다면 나는 뒤로 빠질 것이고, 하갈을 보내서라도 남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불신앙일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임신이 안 될 경우에 여종에게 임신을 시켜서 가계를 이어가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통해서 아기를 낳게 하실 거야. 남편의 아기를 나를 통해 낳게 하실 거야.'라고 한다면 이게 믿음입니까?

저는 사래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같은데요.

자기를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자로서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과 긍지와 인생의 기쁨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여종을 들여보낼 때에, 남편에게 무관심한 여자였다면 진즉에 들여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75세나 되어서 들여보냅니까? 분명히 경수가 끊어질 나이 아니겠습니까?

사래도 아브람만큼은 아니더라도 여필종부(女必從夫)라고 영적으로 그에 못지않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래가 박대해서 하갈이 쫓겨나는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 본문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람과 사래와 하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수정을 가하는 유일한 사람이 하갈입니다. 사래의 행동에 대해서도 단 한 마디 꾸중을 안 하시고 아브람에 대해서도 단 한 마디 꾸중을 안 하십니다. 단지 하갈의 행동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시면서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아브람의 태도는 도대체 무엇이냐?

아브람의 태도는 사래를 믿은 것입니다.

사래의 입에서 나온 '여호와께서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아이 성과 벧엘 사이에 장막을 치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에 제단을 쌓고 자기가 그 땅의 약속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1등자리를 놓칠까봐 제단을 쌓고, 땅에 끌려가는 자기의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해 그때 여호와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래가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람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자가 좋아서 그랬다면 진즉 그랬겠죠. 아브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래가 애를 못 낳는데도 지금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30살에 결혼해서 55년을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래가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사래와 여호와와의 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 관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서 지키지 못한 사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사래가 자기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건져주신 그 여호와가 자기에게 아기를 못 갖게 하신다

고 고백할 때에 아브람은 사래와 여호와의 그 관계를 믿은 겁니다. 사래와 여호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브람은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아랍 사람들을 보면서 '사래와 아브람이 믿음만 잘 지켰으면 태어나지 않을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사람들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인데, 아브람과 사래가 신앙적으로 실수하는 바람에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마엘도 있었지요.
뜬금없이 사래가 아브람에게 하갈을 들여보내는 바람에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일이 벌어졌으니까 내친 김에 이스마엘도 큰 족속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래가 두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람에게 5절에서 "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한 것도 함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사래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리고 사래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하갈의 행동이 돌출된 행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돌출된 행위였고, 그 돌출된 행위를 깎아버리시고 하갈도 아브람의 슬하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한 민족을 이루는 또 하나의 시작이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 하갈을 치고 교정시키기 위해서 사래로 하여금 하갈을 박대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궤도 수정을 요구하십니다.
"너 지금 애굽으로 도망가느냐? 돌아가라. 그리고 여주인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사래와 아브람에게는 단 한 마디도 안 하십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래와 아브람에게 그런 누명을 뒤집어씌울 수 있습니까? '불신앙적인 조급함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이 일을 그르쳤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랍사람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짐으로 은근히 바라는 것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뜻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명예스러운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래가 싸운 거예요. 평생을 싸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뜻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죽여 버립니다.
십자가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래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복된 뜻이 이루어질 때에 나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틈에 명예를 찾으려고 하고 그 틈의 복된 자리에 서려고 하는 나 자신은 완전히 배제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사래에게서 확인하시는 과정에서 수백 번의 기대와 수백 번의 실망 끝에 사래가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붙듭니다.
그렇게까지 기대했다가 아이를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남편에게 약속해주신 복은 다른 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긴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야속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하고, 뜻이라면 나는 배제되어야 하고, 그러므로 여종 하갈을 들여보내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미련퉁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입니다.

수백 번의 기대와 수백 번의 실망.
그러면서도 놓치지 않은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있었던 사래의 이 상태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아랍 사람들이 또 태어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나를 완전히 배제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함으로, 하루하루를 사래와 같이 나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속다운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